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Effects from Social Supports and Global Self-Worth  
on Children's Stresses

한 중 혜 · 박 성 옥\* · 이 영 환\*\*  
대전실업전문대학교 · 대전대학교\* · 전북대학교\*\*

Han, Jong Hye · Park, Sung Ok\* · Lee, Young Whan\*\*  
Taejeon Vocational Junior College, Taejeon Univ.\*, Jonbuk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from social supports and global self-worth on stresses for the children. The subjects were 438 children of the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first grade in Junior High School in Taejeo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Children's Social Support, Global Self-Worth and Stress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tress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age. When the family and the teacher give higher social supports, the 5th graders have higher global self-worth. When the family gives higher social supports, the stresses were decreased for the 5th graders. When the children have higher global self-worth, the stresses were decreased.
2. When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experienced higher global self-worth and social supports from their friends, family, teacher, the stresses were decreased.
3.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experienced more stresses than the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parent-related and academic-related domains. But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experienced less stresses than the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friend-related domains.
4. The path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s from friends and family explained 15% of the stresses for the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upport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 explained 28% of the stresses for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5. For the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upports from friends and family had direct influences on the global self-worth. And the global self-worth had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stresses. But for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social suppor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 had direct influences on the global self-worth. And the social supports from friends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stresses.
6. For predicting the stress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global self-worth for the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first graders in Junior High School.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적 지지란 개인 자신이 관심 받는 대상이며,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임을 믿게 하는 정보다(Cobb, 1976).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자아 평가를 높인다(Harter, 1981, 1986b; Harter & Whitesell, 1986c; LaFreniere & Sroufe, 1985; 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박영애, 1995; 이주리, 1994; 전경란, 1989; 한종혜, 1995)고 밝혀졌다. Bowlby(1969)는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고 밝힘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자아가치감은 행동, 감정 및 대인 관계와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6b, 1986b, 1990, 1991a, 1991b; MacDavid, 1990). 부모의 사랑, 이해, 관심, 존중, 유·무형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가 긍정적 생활 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복돋아 주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삶의 안전판으로 작용한다(윤혜정, 1992). 이렇듯 사회화의 대행자와의 관계는 자아 존중감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다(Harter, 1988). 아동의 자아가치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발달하며, 정신 건강(김선경, 1988; 박정희, 1989; 배기조, 1992)을 예측한다.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생의 일부로(Selye, 1974),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성인뿐만 아니고 아동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성장 발달 과정에서 많은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의 시기는 발달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서, 주요한 생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사건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주위의 기대감과 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성인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

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당수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거나, 불건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천민필, 1993). 서혜전(1993)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한미현(1996)은 특히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행동 문제를 예언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였음을 밝혔다. 한미현(1994)은 아동기는 발달특성상 가족의 영향력은 이전 상태로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되리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김명숙(1994)은 가족·친구·선생님과 같은 주위 사람들이 아동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행동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밝힘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이 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가를 밝힌다면, 아동의 행동 문제를 보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자아가치감(한종혜, 1996),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강성희, 1991; 윤혜정, 1993; 한미현, 1996)와의 관계를 다룬 국내 논문은 있으나, 사회적 지지, 자아가치감, 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연구는 없다. 세 변인의 인과 관계를 밝혀 보는 것은 후속 연구의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받는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여, 아동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자아 가치감 형성 및 정신 건강 유지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아울러 부모 교육과 상담 및 생활 지도의 지침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1.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가치감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지지와 심리 및 신체 증상간의 관련성을 다룬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강민주와 전경숙, 1995; 김명숙, 1995; 한미현, 1996).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Cohen & Wills, 1985) 분석하였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다차원의 구성체라는 주장(Wilcox & Verberg, 1985)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에는 부정적 경험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완충 효과설과,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주효과설이 있다. 사회적 지지가 완충 효과를 갖는다면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예방과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강민주, 전경숙, 1995). 강성희·이재연(199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주효과와 완충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Wills와 Vaughan(1989)은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만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적 지지, 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Dubow와 Ullman(1989)은 Cobb의 개념을 기초로 아동이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받는 존경 지지를 평가하는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한 국내의 척도(강성희, 1991; 김명숙, 1995; 한미현, 1996)가 개발되었다. 부모, 형제, 친구, 교사는 아동에게 의미 있는 사회화의 대행자(심미경, 1986; Buhrmester & Furman, 1987)이며, 이들로부터의 풍부한 사회적 지지가 바람직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제시(Brodhead et al., 1983; Landesman, 1989; Leavy, 1983; Mitchell et al., 1982)되었

다. 사회적 지지를 특정 짓는 요인으로 연령(Fearing & Lewis, 1987, Furman & Buhrmester, 1987, Dubow & Ullman, 1989)과 성별(Buhrmester & Furman, 1987; 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 Kon & Losenkov, 1987) 변인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Harter(1982, 1989)는 역량 지각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반적 자아 가치감이란 역량 지각의 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위계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전반적 자아 가치감이란 역량의 세부적 각 요인의 평가를 더한 합이 아닌 별개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Harter(1989)는 또한 역량 지각의 각 요인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Harter(1989)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 가치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Harter의 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한 한종혜(1996)의 연구는 부모·교사·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전반적 자아 가치감과 긍정적 상관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사가 아동을 긍정적으로, 친밀하게 대하며, 인정을 해줄수록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아졌다. 교사가 아동을 자주 처벌하고, 꾸짖고, 지시하는 경우 아동은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아졌다. 한종혜(1996)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잘 도와주며, 인정을 해주고, 서로 속마음을 얘기해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아동은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좋아했으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였다.

### 2.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한미현(1995)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 주효과를 미치며, 아울러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어서, 스트레스와 행동 문제간에 유용한 증재 변수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윤혜정(1992)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사랑, 이해, 친밀감, 관심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되며 필요할 때 충고나 정보, 물질적 도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성적, 문제 행동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강성희, 1992; 윤혜정, 1992). 서해전(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 관계에서 배척 당하고 소외되는 아동은 친구 관계 외에 현재 생활에도 부적용한다고 밝힘으로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시사하였다. 박성옥 등(1996)은 성별, 연령별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혔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남·여 아동 모두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 가정 환경, 학업, 교사 및 학교와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가정 환경, 친구, 교사 및 학교와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 사회화 대행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경로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 학업, 교사 및 학교와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남아는 5.05%, 여아는 5.28% 설명하였다. 둘째, 성별, 연령별로 모두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성별, 연령별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 친구의 지지가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었다. 특히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1학년이(설명력 7.42%) 초등 학교 5학년(설명력 4.69%)에 비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중학생이 되면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발달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자아가치감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하는(Lazarus & Folkman, 1984)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중대한 삶의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everyday stress)', '매일의 문제'(daily hassles)가 있다(송의열, 1995).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의 원천도 다양하다(오가실과 한정석, 1990; 이광옥과 이연숙, 1991; 윤유경, 1989; Band, 1988; kaufman, 1985; Chandler, 1985;

Miller et al., 1985).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는 주요한 생활 사건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분해 효과를 비교한 결과, 부정적 생활 사건이 행동 문제 발생을 일으킨 반면, 긍정적 생활 사건은 상관이 없었다(김정희, 1991). Dubois 와 그의 동료들(1992)은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가 주요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임을 밝혔다. Rowilson과 Felner(1988)는 주요한 생활 사건과 일상 생활의 사소한 문제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생활 사건과 적응과는 상관 관계 매우 낮았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생활 사건과 독립적으로 거의 모든 변량을 설명하였다.

성별, 연령별로 모두 자신의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아졌다. 그 다음으로 신체·용모에 대한 역량 지각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전 영역에 걸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박성옥 등, 1996). 한편 Harter(1986, 1987, 1991)는 여러 유형의 경로 모형 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아동의 정서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옥 등의 연구(1996)에 따르면 남·여아 모두 자아가치감과 '부모 관련 스트레스'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자아가치감은 중학교 1학년만이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최명구 등(1995)은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관계와 교우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 김경자(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 관계, 교우 관계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 김경자(1994)는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 관계 및 교우 관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을 밝혔다.

한편 한중혜(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흥미 있고 활기가 있으며,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또래보다 활기가 없고 기운이 없었다. 또한 자아가치감과 자기 비난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일이 그르쳐진 경우 더 자신을 비난하였다. Lefkovitz(1980)는 우울한 아동의 경우,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은수(1994)에 따르면 자기 지각이 강한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 지향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지각이 낮은 아동은 정서 지향적으로 대처함을 밝혔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정신 건강 상태의 유지를 돕기 위해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및 측정 도구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남녀 아동 각각 288명, 210명 총 438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통계 성별		N(명)	%
성 별	남	228	52.1
	여	210	47.9
연 령	11 - 12 (초등 5학년)	217	49.5
	13 - 14 (중등 1학년)	221	50.5
형 제 수	없음	29	6.7
	1명	251	58.4
	2명 이상	158	34.9
아버지 유무	계심	427	97.5
	안 계심	11	2.5
어머니 유무	계심	434	99.1
	안 계심	4	0.9

N=438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및 역량과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1996)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미현은 Dubow와 Ulman(1989)이 3-7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개발한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과 국내(윤혜정, 1993; 김명숙, 1995)의 척도 등을 참고로 검증 절차를 거쳐 제작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친구의 지지(Cronbach의  $\alpha$ 계

수= .69) 8문항, 가족의 지지(Cronbach의  $\alpha$ 계수= .69) 8문항, 교사의 지지(Cronbach의  $\alpha$ 계수= .86) 8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각 사회화의 대행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검사는 Harter(1985)가 제작한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거친 박영애(1995)의 역량 지각 척도 중에서 별도의 위계적 개념인 전반적 자아 가치감(Cronbach의  $\alpha$ 계수= .72)으로 측정하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type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아가치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측정은 유안진, 한미현(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9문항의 6개요인 4점 Likert type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8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87), 가정 환경 관련 스트레스(7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82), 친구 관련 스트레스(7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86), 학업 관련 스트레스(7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83), 교사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7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73),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6문항, Cronbach의  $\alpha$ 계수= .77)이다.

####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6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지역은 대전, 전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담임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에 따라 첫째,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r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직접, 간접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자아 가치감,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발달 단계별(초등 학생, 중학생)로 각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상관 계수를 <표 2>에서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친구·가족·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 가치감이 높았다( $r=.37, r=.34, r=.27, p<.001$ ). 그러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3>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친구, 가족, 교사의 모든 사회적 지지 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 $r=-.32, -.25, -.32, p<.001$ )를 나타내며, 자아 가치감과 스트

레스와의 관계도  $r=-.48 (p<.001)$ 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위의 <표 2,3>의 결과에서 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 변인이 초등 학생의 경우는 가족의 지지만으로 나타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가족 이외에도 친구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 $r= -.32, -.25, -.32, p<.001$ )를 나타내며, 자아 가치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도  $r=-.48(p<.001)$ 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은 아동이 크면서 부모 뿐 아니고, 친구·교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행동 문제가 적게 발생하였다는 김명숙(1995)의 결과와도 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준다는 한미현(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의 결속력·만족(한중혜, 1995), 성실한 관심과 지도(Crouter, 1990), 사회적 지지(강민수, 1993), 아버지와의 애정 및 만족(한중혜, 1995)이 아동의 자아 개념을 증진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교사의

<표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초등 학교 5학년)

	친구의 사회적지지	가족의 사회적지지	교사의 사회적지지	자아 가치감	스트레스
친구의 사회적지지	1				
가족의 사회적지지	.31**	1			
교사의 사회적지지	.33**	.45**	1		
자아 가치감	.37**	.34**	.27**	1	
스트레스	-.09	-.21*	-.13	-.37**	1
평균	3.54	3.93	3.23	2.90	1.87
표준편차	.72	.65	.91	.64	.54

\* $p<.01$       \*\* $p<.001$

<표3> 연구 변인들의 상관 관계(중학교 1학년)

	친구의 사회적지지	가족의 사회적지지	교사의 사회적지지	자아 가치감	스트레스
친구의 사회적지지	1				
가족의 사회적지지	.34**	1			
교사의 사회적지지	.44**	.34**	1		
자아 가치감	.27**	.24**	.33**	1	
스트레스	-.32**	-.25**	-.32**	-.48**	1
평균	3.48	3.75	3.03	2.62	1.98
표준편차	.65	.69	.89	.57	.45

\* $p<.01$       \*\* $p<.001$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전반적 자아 가치감을 높이며(한종혜, 1996), 교사의 엄격한 통제와 체벌이 아동의 긴장, 공격성, 불안울 조성한다는(이영석 등, 1993)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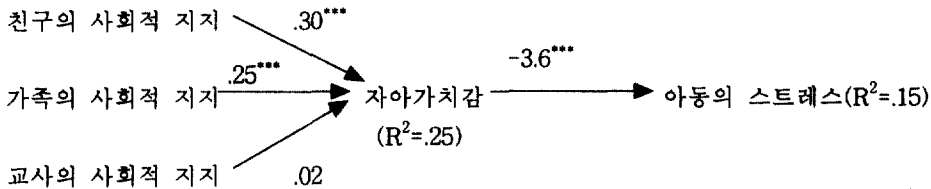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초등 학생의 경우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지 변인 중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 가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자아 가치감은 다시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들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량은 15%이다.

<그림 2>는 중학생의 경우로, <그림 1>과는 달리 자아 가치감에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변인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중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친구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므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변인들의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 변인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초등학교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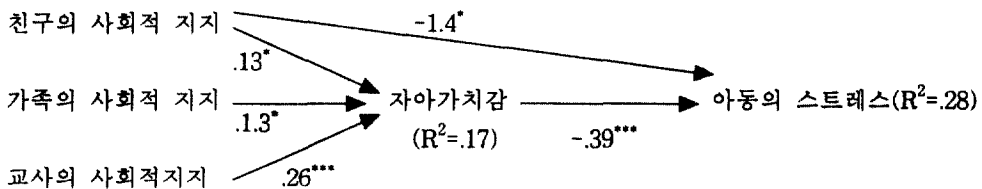
변인	총체적 관계 A	인과적 모형			비인과적 효과 A-D
		직접 효과 B	간접 효과 C	전체 효과 D=(B+C)	
친구의 사회적 지지	-.09		-.11	-.11	.02
가족의 사회적 지지	-.21		-.09	-.09	0.12
교사의 사회적 지지	-.13				0.13
자아 가치감	-.37	-.36		-.36	0.01

\* 총체적 관계는 단순 상관 계수(Pearson의 직접 상관 계수)임.



\*\*\*p<.001

<그림 1>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의 경로 분석(초등 5학년)



\*p<.10 \*\*\*p<.00

<그림 2>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의 경로 분석(중 1학년)

<그림1>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이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아 가치감( $r=-.37$ ), 가족의 사회적 지지( $r=-.21$ ), 교사의 사회적 지지( $r=-.13$ ), 친구의 사회적 지지( $r=-.09$ )의 순으로 총체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의 경우, 교사 및 학교 영역의 스트레스와 부모 영역의 스트레스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 문제에 대한 예언력이 높았다(한미현, 1996)는 점에서, 이들에게 알맞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 학생들은 잠자기(14.7%), 음악 감상(13.9%), 영화나 비디오 감상(11%), 오락실 게임(5.3%)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상당수가 적절한 해소 방법을 모르거나 불건전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천민필, 1993),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사용한 경우 사회적 적응을 잘 했다는(서해전, 1993) 점에서, 앞으로는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자아 가치감 변인은 인과적으로 미치는 총효과(-.36)가 모두 직접 효과에 의한 것이며, 친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모두 간접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이 시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 가치감이 낮을수록, 친구나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5>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 가치감 변인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중학교 1학년)

변인	총체적 관계 A	인과적 모형			비인과적 효과 A-D
		직접 효과 B	간접 효과 C	전체 효과 D=(B+C)	
친구의 사회적 지지	-.32	-.14	-.05	-.19	-.13
가족의 사회적 지지	-.25		-.05	-.05	-.20
교사의 사회적 지지	-.32		-.10	-.10	-.22
자아 가치감	-.48	-.39		-.39	-.09

\* 총체적 관계는 단순 상관 계수(Pearson의 직접 상관 계수)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그림 2>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아 가치감( $r=-.48$ ), 친구 또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 $r=-.32$ ), 가족의 사회적 지지( $r=-.25$ )의 순으로 총체적 관계가 있었다. 자아 가치감 변인은 인과적으로 미치는 총효과가 모두 직접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국민학생 시기에 비해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간접으로 보다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발달 특성상 가족의 영향력은 이전 상태로 유지되거나 감소되는데 반해 친구의 영향력은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증가한다는 한미현(1996)의 견해와 일치한다.

가족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모두 간접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가치감이 낮을수록, 친구나 교사 그리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시기가 되면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표6>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한 제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초등 학교 5학년)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값
자아 가치감	-.31	-.36***	.15	6.11***
친구의 사회적 지지	-.09	-.11		
교사의 사회적 지지	.06	.08		
가족의 사회적 지지	.00	-.01		
constant	2.95			

\*\*\*p<.001

<표7>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한 제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중학교 1학년)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값
자아 가치감	-.32	-.39**	.28	14.63
친구의 사회적 지지	-.10	-.14*		
교사의 사회적 지지	-.06	-.10		
가족의 사회적 지지	-.05	-.08		
constant	3.53			

p<.10 \*\*p<.001

본 경로 분석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6, 7>과 같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초등 학교의 경우 자아가치감( $\beta = -.36, p < .001$ )이며, 중학생의 경우는 자아가치감( $\beta = -.39, p < .001$ ), 친구의 사회적 지지( $\beta = -.14, p < .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6, 7>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아가치감이었다.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초등 학생의 경우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 변인이 보다 의미 있다고 나타났다.

#### IV. 요약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초등 학교 5학년의 경우 가족,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이 높았다.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으며,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2. 중학생의 경우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으며,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3. 초등 학생의 경우 친구, 가족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이 스트레스를 15% 설명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이 스트레스를 28% 설명하였다.
4. 초등 학생의 경우 친구·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 가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아동의 자아 가치감은 다시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학생의 경우 친구·가족·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 가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중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5. 초등 학생, 중학생 모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아가치감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당면하는 스트

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정밀히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강민주, 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기 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7-210.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적용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학위 청구 논문.
- 김선경(1988). 우울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자아 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경자(1995).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희(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 문화사.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과 학업 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경애(1992). 아동들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대처 방법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성욱, 이영환,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역량 지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발표논문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추계학술대회, p171-183.
-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 경향성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

- 위 논문.
- 서혜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 언어적 표출과 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의영, (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심미경(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가실, 한정석(1990). 스트레스 생활 사건, 건강 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제 20권, 제 3호: 414-429.
- 윤유경(1989).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광옥, 이연숙(1991). 건강한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 반응. 간호과학, 48-49.
- 이남기(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 환경 및 양육 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4호(통권 제 104호).
- 이민규, 김순화, 금명자(1985). 스트레스: 그 원인과 대책. 중앙 적성 출판사.
- 이영석, 이경영(1993). 유아 사회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성출판사. 339-340.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 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자아 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전경숙(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은수(1994). 초등 학교 아동의 성격 특성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명구, 김경자.(1995). 아동의 자기 역량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대학 생활 연구 제 13호, 한양대학교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 최혜림(1987). 스트레스와 그 대응책, 현대 사회, 여름.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 p90-105.
-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 수용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한성희(198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기도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9(1), 81-91.
- 한중혜(1994).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인간 발달 학회지* 창간호
- 한중혜(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2 호.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Aneshensel, C.S., & Frerichs, R. R. (1982). Stress, support,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causal mode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63-376.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Bryant, B, K. (1985). The neighborhood walk: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 Development, 50.*
- Buhrmester, B. K.,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rt, C. E., Cohen, L. H., & Bjorck, J. P. (1988).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s a moderator of young adolescents' life stress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101-122.
-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hen, S., Burt, C. E., & Bjorck, J. P.(1987). Life stress, adjustment: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83-592.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No. 4*, 422-429.
-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NO. 2*, 181-190.
- Coyne, J. C., & Downey, G.(1991).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2*, pp.401-425. Palo Alto, CA : Annual Reviews.
- Crouter, A. A., MacDermid,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David L. DuBois, Robert D. Felner, Stephen Brand, Angela M. Adan, & Elizabeth G. Evans.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odge ,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M.(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1*, 52-64.
- East ,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ive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 163-172.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87.
- Harter, S., Kowalski, P., & Whitesell, N. (1986). The effect of transitions to

- new academic environments on children's 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 Harter, S. (1987).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children in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Edited by Nancy Eisenberg, Arizona State University.
- Harter, S. (1988).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 Greca (Eds.), *Childhood assessment: Through the eyes of a child*, Allyn and Bacon, 292-325.
- Harter, S. (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and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43-70.
- Harter, S. (199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self-Representations: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No. 2, 113-142.
- Harter, S., & Donna B. Marold. (1991a). A model of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al role of self-worth: Implication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Jaine Strauss George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Springer-Verlag, NY, 66-92.
- Harter, S., & Whitesell, N. R. (1991b).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grade-related changes in external competence evaluation and comparison, and the effect of such changes on perceived competence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University of Denver.
- Holahan, C., & Moos, R. H. (1981).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Kurdek, L. A., & Krile, D., A. (1982).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dd, G. & Price, J. M. (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446-460.
- Lamb, M. E., Hwang, C., & Broberg. A. (1989).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agreement regarding child rear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ies and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 115-12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 Pinneau, S. R. (1986).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ess. In Lin, N.,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17-24. Orlando: Academic Press.
- Rowlison, R. T., & Felner, R. D.(1983).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p432-444.
- Sandler, I. N., Miller, P., Short, J., & Wolchik, S.,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 support, I. G.
- Selye, H.(1982) History and present status concept. In L. Goldberger and S Berenznit,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 Shantz, C. U., & Hobart, C. J.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ilcox, B. C., & Vernberg, E. M. (1985).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lemmas facing social support. In Sarason, I. G., & Sarason, B. R. (Ed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20.
- Wills, T. A., & Vaughan, R.(1989). Social support and substance us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 321-339.